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임 상 범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중국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 분석

2016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왕 진 경

중국박물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사례 분석

임 상 범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5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역사교육전공

왕 진 경

인 준 서

왕진경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5년 11월

심사위원장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심 사 위 원 _____ 인

성신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논문개요

I . 서론	1
II . 중국과 대만의 박물관 역사	4
1. 1949년 이전 중국 대륙의 박물관 역사	4
2. 당대 중국과 대만의 박물관 역사 흐름	7
III . 중국과 대만의 박물관교육 흐름	14
1. 근대 중국의 박물관교육론	14
2. 당대 중국과 대만의 박물관교육론	16
IV . 당대 중국과 대만의 박물관교육 현황 및 사례 분석	19
1. 중화인민공화국의 박물관교육 현황	19
2. 대만 고궁박물관의 교육 사례	25
V . 정리 및 제언	32

ABSTRACT

논문개요

오늘날 다양하고 확대된 사회 속에서 박물관의 대중 개방성과 그 교육적 기능은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유용성이 기대된다. 유물의 수집과 보존, 전시의 기능에서 교육적 효과에 이르기까지, 박물관이 갖는 긍정적인 기능과 이에 대한 관심은 박물관과 박물관교육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질 수 있는 저변을 마련하였다.

근대문물의 유입과 함께 시작된 중국의 박물관도 시대의 흐름을 따라 변화를 겪어왔다. 박물관의 기본 기능인 전시가 유물의 나열을 통한 내용 주입을 우선하던 이전과 달리, 중국의 박물관도 오늘날 박물관의 흐름처럼 관람객과 소통하기를 원하였다. 그 소통은 중국에 대한 이해받기를 목적으로 하며 일정 부분 전시를 통해 소화되는 측면이 있다. 본 논문은 이 지점에서 중국국가박물관과 상하이시역사박물관의 전시를 대만고궁박물관과 비교해 봄으로 중국과 대만의 현재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고에서 중국과 대만의 사례와 비교하는 것은 양안관계인 두 국가가 근대 이후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발자취가 현재 민감하고도 매우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기에 그것이 박물관 교육에서도 점철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중국국가박물관의 ‘부흥의 길’ 전시는 중국을 부흥의 역사로 보여주며 중국 당국 특색의 사회주의 국가의 모습을 자신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설명한다. 근대화의 표상인 상하이시는 상하이시역사박물관의 동방명주 전시관을 통해 그 도시의 맥락과 중국 정부의 입장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대만의 고궁박물관도 그들의 맥락이 있다. 중국 대륙이 아닌 섬이라는 지역적 특성을 가진 대만 정부는 전통왕조의 가치 있는 유물을 선진적 전시 기술

을 통해 환기하고 강조한다. 그러나 이는 지리적 소외감을 바탕으로 하는 대만의 정체성 확인 작업으로 중국과 매우 닮은 양상이다.

오늘날의 박물관과 박물관교육의 세계적 흐름이 박물관의 정치성, 사회성에 대한 물음으로까지 이어지는 이 시점에, 중국과 대만의 정체성 굳히기가 각 정부의 의도처럼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지금과 같이 전시 기법에 테크놀로지를 접목한 것과 같은 시각적 기술의 진보나 선진화로 해결화 될 일이 아니며 다른 각도에서 고민되어야 한다.

I. 서론

지난 2010년, 국제박물관협의회(ICOM-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¹⁾는 상하이 엑스포 참석²⁾을 통해 오늘날 박물관이 사회적 조화에 기여하는 공간을 향해 달려가고 있음을 표명했다. 이는 박물관의 역할이 앞으로 사회, 문화, 경제, 환경의 측면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하는 지에 대한 질문이며 박물관의 사회적 책임³⁾을 강조하는 것이었다.⁴⁾

이러한 움직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오늘날의 박물관은 유물의 소장과 전시, 연구에서 더 나아가 그 역할에 대한 저변과 기대가 확대됨은 물론, 그 방법과 역량에 있어서도 실제적 발전을 이루고 있다.

박물관의 본래의 기능인 수집과 보존, 전시, 연구는 의도를 가지고 판단된 가치에 따라 선택된 전시물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정치적 성격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보여주는 것, 즉 시각에 호소하는 것은 근대 박물관이 성립된 이래로 변하지 않는 박물관의 고유한 기능이다. 이 행위에 대한 호불호와 관계없이, 박물관이 사회적 시스템으로 자리 잡는 것은 곧, 박물관이 그 사회의 다층적인 권력관계 속에서 기본적 성격이 규정되고 사회상황을 매개하는 끊임없는 변화를 겪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⁵⁾ 때문에 박물관과 박물관의 전시는 시대의 변화에 반응하며 이를 드러낸다.

1) ICOM은 박물관과 박물관 전문가를 대표하는 국제 조직이다. <http://icom.museum/the-organisation/>, 2015-11-4.

2) ICOM News 2009 no.2, p.15, ICOM News 2010 no.1. 16-17쪽.

3) 근대 박물관의 역사는 전세계에 대한 패권적 조망이라는 고전적인 미국 박물관의 전통을 벗어나려는 시도였기에 엑스포에 참가한 ICOM의 활동은 이중적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속단이며 ICOM은 엑스포 참가를 통해 수집과 전시, 연구라는 고전적 문법을 따르면서도 앞으로의 박물관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하는 자기반성적이고 자기 비판적인 활동을 보이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는 신박물관학을 비롯해 다양하게 존재하나 본고에서는 박물관 역할과 기능 확대라는 긍정적 발전의 측면으로 언급만 하고 넘어가겠다. 신박물관학에 관한 이해는 다양한 논문을 통해 다루어지고 있다. (박소현, 「신박물관학 이후, 박물관과 사회의 관계론」, 『현대미술사연구』29, 2011, 211-237쪽).

4) "ICOM at the Shanghai 2010 World Expo". ICOM News Vol 62. no 2. 2009 - 2010, 15쪽.

5) 가네코 아쓰시, 「박물관의 정치성에 대해-박물관사 연구방법론에 대한 생각」, 『미술사논단』 14, 2002, 67쪽.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본고에서는 중국의 박물관교육을 통해 오늘날의 중국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은 1949년 이후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이하 중국)과 대륙 남부섬의 중화민국(中華民國-이하 대만)으로 나뉘어 존재한다. 본고는 대륙 중국에서 출발해 서로 다른 정치·경제·사회 체제를 가진 두 나라의 박물관교육 사례를 비교를 해보려고 한다.

중국의 박물관 교육을 살펴보는 데 있어 보다 균형 있는 시각을 위해 서로 다른 정치 체제를 가진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대표적인 박물관이라고 생각되는 세 기관(중국국가박물관, 상하이지역사박물관, 대만고궁박물관)을 선택하였다.

일반적으로 박물관의 주된 역할은 교육과 즐거움을 사회에 제공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많은 박물관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식 생산의 전파를 위한 교육 또는 연구에 두고 있다. 그중에서 박물관교육은 박물관에서 일어나는 교육으로, 박물관이 갖는 고유 기능과 교육의 기본 성격이 결합된 것이다. 아울러 박물관이 주체가 되어 진행하는 모든 활동을 교육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것과,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아카데미 형식의 활동 두 가지로 이해할 수 있다.⁶⁾ 본문에서는 박물관이 주체가 되어 제공하는 활동을 박물관 교육의 범주로 한다.

오늘날 중국 박물관교육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세계화 추세와 한 발짝 떨어져 국가 주도의 애국주의 교육 기지로 활용되고 있는 측면이 강하다. 1994년 발표된 애국주의실시요강(愛國主義教育實施綱要)⁷⁾에 의하면 중국은 애국주의교육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시키고 교육 이론, 교재, 시설을 이용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교육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다양한 애국주의교육의 통로 가운데 박물관을 비롯한 기념관, 유물, 유적지 등이 주요 시설로 지

6) 백령, 『멀티미디어시대의 박물관 교육』, 예경, 2005, 19쪽.

7) 관련된 내용은 中共中央关于印发『爱国主义教育实施纲要』的通知, 一九九四年八月二十二日 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politics.people.com.cn/GB/8198/65833/65839/66928/4514382.html>, 2015-11-11.

목되며⁸⁾ 이곳에서 실제로 지금도 많은 애국주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오늘날 중국의 박물관의 수는 2,000 여개이며 그 수장품의 양 또한 방대하여 풍부한 전시자원을 자랑한다. 그 형태 역시 사회역사, 자연과학, 문화예술, 혁명기념, 전문 직업, 생태환경의 여섯 종류로 구분된 비교적 완전한 체계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관련 학문과 법, 관리체계 등이 내외적인 완성을 이룬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⁹⁾

대만박물관은 외형적으로는 박물관 본연의 기능인 전시와 수집, 연구 기능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의 박물관이 요구하고 있는 교육과 위락이 제공되는 이용자 중심의 기관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풍부한 소장 유물을 바탕으로 하는 전시는 물론 가상 박물관 관람,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와 관련 연구 출판 및 아카이브 관리 등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¹⁰⁾

대만박물관의 전시 방향은 각 시기 정치적 상황에 발맞추고 있다. 탈식민화-중화 문화 부흥 운동-탈중국화로의 과도기-탈중국화 및 대만화로 이어지는 정치적 국면에 대응해 설정된 대만의 정체성¹¹⁾은 변화를 겪는 것으로 보이지만 결국 그 주류는 중국의 정통성을 승계한 정부라는 하나의 흐름으로 귀결된다.

박물관의 정치성과 연결하여 생각해보자면, 박물관은 국가적 정체성 내지 시대에 부응하는 민족주의 창조를 위한 사회적 장치다. 때문에 대만은 자연사박물관이자 식민 유산인 대만국립박물관보다도 수준 높은 중화문물을 소장한 대만국립고궁박물관을 더욱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¹²⁾

본 논문은 이러한 중국 대륙과 대만의 박물관이 오늘날 박물관 전시와 박

8) 위의 글, 四、搞好爱国主义教育基地的建设 中 20, 2015-11-11.

9) 呂濟民, 「중국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박물관학보』2, 1999, 33-39쪽.

10) 대만박물관의 다양한 사업은 공식 홈페이지의 중문판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http://www.npm.gov.tw/zh-TW/Article.aspx?sNo=03001502>, 2015-11-11.

11) 하세봉, 「臺灣 박물관과 전시의 정치학-3대 박물관을 중심으로-」, 『中國近現代史研究』45, 2010, 129-154쪽.

12) 위의 논문, 90년대 이후 대만 민족주의가 창조될 때 고궁박물관이 지적된 주요 부분이기도 하다.

물관교육을 통해 이야기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 보려한다.

중국 대륙은 현재 큰 변화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박물관에도 구현되어 있으리라 생각 된다. 중국의 박물관과 박물관 교육은 새로운 양식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대중에게 가까이 다가가고 있으며 그 교육적 효과를 통한 호평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이후 사회주의 이념의 현실화 과정 중에 난제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중국이 세계화의 흐름과 중국 고유의 문화의 충돌을 잘 극복하여 개성 있는 현대적 박물관으로 발전했는지는 의문이다. 때문에 박물관에서의 역사교육이라는 하나의 통로를 통해 중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이와 비견해 자본주의 현실에 적용한 대만의 고궁박물관을 살펴보는 기회를 가지려고 한다. 그 이론적 근거는 한국과 대만, 중국에서 저술된 박물관 및 박물관 교육, 역사교육 관련 논문과 저서 등에 기반 한다.

II. 중국과 대만의 박물관 역사

1. 1949년 이전 중국 대륙의 박물관 역사

박물관(Museum)은 고대 그리스 뮤즈의 신전인 무세이온(Museion)과 알렉산드리아 도서관(Library of Alexandria)에서 기원하는데 이는 문화유산을 수집하고 보존하는 기능을 가진 것에서 비롯한다. 하지만 오늘날 박물관의 실제적인 시작은 근대 유럽의 민족주의 성장을 배경으로 한다.

18세기 계몽주의와 함께 성장한 유럽의 민족주의를 통해 근대국가가 형성되었다. 유럽 국가들은 역사를 간직한 박물관의 유물과 유적의 전시를 자국민의 유대감 형성과 민족의식 고무의 한 방편으로 여겼다. 이를 바탕으로

공통의 역사를 보여주는 박물관 전시는 공동체 의식 형성에 실제로 이바지 했고 최초의 근대식 박물관인 영국의 대영박물관을 시작으로 특정 계층에서 향유하던 개인적인 컬렉션은 대중에게 개방되었다.

산업화를 통해 시민계급이 등장하고 유럽 각국은 민족 연대의식을 바탕으로 박물관 건립을 경제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국가재산으로 귀속된 교회와 수도원, 성 등을 그 특성과 규모에 따라 향토박물관, 민속박물관, 시립 또는 지방박물관이 지정되고, 각 박물관은 민족적 특성을 담고 있는 유물과 유적의 수집과 관리에 노력을 기울였다.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박물관은 민족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정신 교육의 장으로 충실히 역할을 하며 대중에게 전시에 대한 이해와 역사의식의 고양에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의 위치를 견고하게 했다.

20세기에 들어 박물관은 전문성을 가진 하나의 교육기관으로의 기능도 강조되는데, 본래의 수집·보존·연구와 전시 기능에 교과교육을 확장시키는 기능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는 국민의식 형성에서 더 나아가 구체성을 띠는 역사의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¹³⁾ 그리고 현대의 박물관은 그 역할이 점점 확대되어 전시와 연구의 다양성이 요구됨은 물론, 사회교육과 여가 선용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

중국의 박물관은 근대화의 신물인 유럽의 박물관과 달리, 서구에서 유입된 근대화 과정에서 도입되었다. 중국 고대에도 개인이 옛 기물을 수집하여 보존하는 행위가 존재하였으나 박물관(博物館)¹⁴⁾ 이라는 단어에 관한 언급은 없고 사유의 개념으로 오늘날의 박물관과 같은 기관이라고 생각하기 어렵

13) 김호숙, 「박물관과 역사교육」, 『역사와실학』13, 1999, 19-42쪽.

14) 박물관(博物館)은 일본에서 시작된 용어로 서양에서 들여온 새로운 기관인 museum에 한자 명칭을 부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많은 사물이나 넓은 지식의 의미로 사용되던 중국 고전의 '박물(博物)'이란 개념에 건물을 뜻하는 관(館)이 합쳐져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어원을 고려한다면 박물관은 다양한 사물에 대한 넓은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곳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역할은 소장품에 관련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연구와 교육적 기능에 중점을 둘 수 있다 (서원주, 「동서양 '박물관' 명칭의 어원과 그 교육적 함의」, 『박물관교육연구』 창간호, 2007, 68쪽).

다.¹⁵⁾ 그러나 박물관(博物)이라는 개념이 이미 존재하였기에 MUSEUM을의 번역인 박물관을 그대로 사용한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박물관의 기능과 관련된 다양한 단어를 사용해왔다. 현재는 박물관(博物院)과 박물관(博物館)을 사전적으로 같은 의미로 정의해 사용하고 있으며 용례적으로 박물관을 박물관보다 상위의 개념으로 사용한다.¹⁶⁾

근대에 유입된 박물관에 대한 중국의 인식은, 아편 전쟁 시기 서방 서적의 번역을 통해서라 볼 수 있다. 1차 아편전쟁 이후 관원들이 서양을 유람하게 되면서 린젠(林鍼)의 ‘서해기유초(西海紀游草, 1849)’, 빈춘(斌椿, 1804-1871) ‘승사필기(乘槎筆記, 1866)’ 등과 같은 개인적인 기록에 박물관에 대한 기술이 등장한다. 이때까지는 박물관의 기능을 명확히 인식했다기보다 건축에 대한 간단한 묘사와 칭찬에 그치는 정도였다.¹⁷⁾ 점차 서학의 전파와 함께 박물관의 교육기능의 인식이 심화되며 1905년 중국인이 최초로 설립한 근대식 박물관인 난통박물관(南通博物院)¹⁸⁾이 설립되었다. 또한 호남의 도서관 및 교육박물관, 천진교육품진열관(天津教育品陳列館) 등 초기 교육 박물관류의 설립이 이루어 질 수 있는 저변이 마련되었다.

1915년 신문화운동을 통해 민주와 과학의 개념이 확산되고 교육과 과학 사상이 중시되면서 교육기관의 일환으로 중국 내 박물관의 수 또한 현저히 증가했다. 이에 당시 중국 정부인 국민당은 교육행정제도를 개혁하며 박물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만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후 1920-30년대

15) 李軍, 「晚清民国时期对博物馆教育功能的认识」, 『博物馆新论』, 2014-1, 107-109쪽.

16) 서원주, 「동서양 ‘박물관博物館(museum)’ 명칭의 어원과 용례」, 『인류에게 왜 박물관이 필요했을까?』, 민속원, 2013, 37-59쪽.

17) 李軍, 위의 논문, 107-108쪽.

18) 이전에도 중국에 박물관이 있으나 이는 외국인에 의해 설립된 박물관이다. 초기에는 선교사들에 의해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자연역사류 박물관이 존재하였다. 영국이 설립한 1874년 상하이자연사박물관(上海自然史博物院)이나 1904년 톈진(天津)의 허베이박물관(華北博物院), 1914년 프랑스가 톈진에 설립한 베이징박물관(北疆博物院), 타이완 지역에 1915년 일본이 세운 총독부 민정부 식산국 부속 기념관(總督府民政部殖産局附屬紀念館) 과 1916년 뤼순(旅順)의 관동도독부만몽박물관(關東都督府滿蒙博物館), 미국이 1919년 청두(成都)에 설립한 화서역화대학박물관(華西協化大學博物館) 등이 있다(오일환, 「中國의 博物館-形成과 發展을 中心으로」, 『고문화』52, 1998, 253-273쪽).

중국 각 지역에 성시급박물관이 건립되고 1928년의 총 17곳이던 박물관과 미술관은 1936년에는 231개로 증가하며 양적으로 급증했다.¹⁹⁾

이후 1937년의 항일전쟁부터 국공내전과 중화인민공화국 건립까지의 내부 혼란기에는 박물관의 파괴와 손상도 심각해 사업의 소강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박물관 관련 연구 활동의 맥은 이어져 왔다. 실례로 증소유(曾昭燏)²⁰⁾과 이제(李濟)의 『박물관(博物館)』 출판이 있다. 이는 박물관의 소장·보존, 연구, 실지실물, 정신교육의 4가지 기능을 말하는 최초의 박물관의 기본 기능에 대한 글이다.²¹⁾ 이 시기 대다수의 박물관은 폐관되고 고궁박물관, 하남성 박물관, 남경 및 중앙박물관이 소장하던 중국의 주요 유물들은 국민정부의 이동과 함께 1948년 대만으로 옮겨가게 된다.

2. 당대 중국과 대만의 박물관 역사 흐름

1) 중국 대륙의 박물관 역사

1949년 중국 대륙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면서, 중국공산당은 기존에 교육부에 속하던 박물관을 문화부 문물사업관리국으로 독립시키고 남아있던 25개의 박물관을 관리했다. 또한 외국인 설립 기관을 회수하고, 1951년 지방 문물관리위원회집행조직통칙과 지방박물관에 대한 방침, 임무, 성질 및 발전 방향 의견을 발표하며 각 지역에 박물관을 신축하였다. 이 때 전시 내용이 사회주의 사상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은 배제하고 사상성, 과학성, 예술성을 도출하는 유물주의 관점으로 전시 형태를 바꾸었다.

19) 오일환, 앞의 논문, 264쪽.

20) 曾昭燏(1909-1964): 중국의 여류박물관학자이자 고고학자. 남경박물관장을 지냈으며 중국의 고고학, 박물관 사업에 종신했으며 중국문물의 발전과 보호에 공헌했다.

21) 이정효, 「중국박물관의 기원과 그 근대화 과정에 대하여」, 『박물관학보』 12월, 2004, 219쪽.

이러한 작업을 거쳐 1952년의 중국 대륙에는 32개의 사회주의 박물관이 존재하였다. 50년대 이후에는 각 성급의 지지박물관(省級地志博物館)과 기념성 박물관(紀念|生博物)이 건립²²⁾되기 시작하였고 그 수는 점차 늘어나게 된다. 또한 1956년과 57년에는 박물관 관련 공작회의와 좌담회도 개최하는 등 박물관 사업이 활성화되며 이후 61년까지 박물관의 조정 작업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일단락되지만 1966년 문화대혁명으로 이후 10년간 박물관은 다시 정체를 맞았다.

중국의 박물관은 개혁개방 이후 약 20여 년간 획기적인 발전과 변화를 가진 것으로 자평된다.²³⁾ 파괴되었던 박물관을 현대화된 시설로 재건하면서 들어서고 자연계 박물관의 개보수나 과학기술류 박물관 건립을 비롯한 수적 증가와 종류의 다양화를 이루었으며 소장품과 수장 기능을 통해 박물관의 교육 직능을 충분히 발휘한 것으로 자평한다. 그러나 그 관리체제의 개혁과 관리의 저변을 넓히는 것이 주요 과제이다.²⁴⁾

이제 오늘날의 중국 박물관 교육을 살펴보려는 본고의 목적에 앞서 대상이 되는 중국국가박물관과 상하이지역사박물관의 역사를 살펴보는 과정을 통해 두 박물관이 갖는 의미를 찾아보려고 한다.

19세기 중엽 박물관이 중국에 소개되고 유신파 인사들이 근대적 박물관의 건립을 제의했다. 이후 이와 관련된 요구들이 계속되면서 1912년 6월에 베이징에 박물관 설립은 준비했다. 초기에는 국자감을 박물관 부지로 선정했으나 협소함을 이유로 설립 장소를 자금성 단문과 오문으로 이전하고 1920년 11월에 국립역사박물관이 성립했다. 개관일은 1926년 10월 10일이며

22) 지지박물관은 소련에 바탕을 둔 것으로 종합성 박물관이라고도 하며 해당지역의 자연자원과 역사발전, 민주건설 등을 전시에 담고 있다. 기념성 박물관은 혁명박물관 건설주비처 설립을 결정하고 조건이 마련되면 대도시에 지방 혁명박물관이나 기존 박물관 내에 혁명문물 진열실을 설치하도록 한 것이다. 1952-55년 사이의 중국 박물관 분류통계표는 전문성, 지방성, 기념성 하에 도시별, 연도별 구분이 이루어지고 있다(오일환, 앞의 논문, 253-273쪽).

23) 呂濟民, 앞의 논문, 33쪽.

24) 呂濟民, 위의 논문, 36-37쪽.

1949년 10월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되자 국립베이징역사박물관으로 개칭하고 중앙인민정부 문화부에 소속되었다. 이듬해 3월에 중앙혁명박물관 준비처가 설립되면서 1960년에는 베이징역사박물관이 중국역사박물관으로 개칭하고, 중앙혁명박물관은 중국혁명박물관으로 바뀌는데, 이 둘이 1969년 9월 합병하여 중국혁명역사박물관이 되었다. 이 박물관은 1983년 초에 재분리되었다가 다시 2003년 2월 현재의 중국국가박물관으로 이름을 정하고 2011년 3월 1일 재개관되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설립된 중국국가박물관은 현재 70여 만점의 고대 유물과 30여 만점의 혁명관련 유물을 소장하고 “고대중국”과 “부흥의 길”이라는 두 가지 상설전시관을 만들어 전시하고 있으며 이밖에 10여개의 각종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부흥의 길”은 새로 개관한 중국국가박물관의 중국 근현대사 부분의 전시로, 전시 목적이 매우 명확하였다. 중국공산당의 영도로 건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을 통해 사회주의 기본제도가 확립되고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교육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2007년 중앙인민혁명군사박물관에서의 전시를 시작으로 계속된 “부흥의 길”은 일부 내용이 수정·보완된 후 현재 중국국가박물관에 상설 전시로 자리 매김하였다.

상하이지역사박물관(上海市歷史博物館)은 상하이 지방 역사의 지역적 특성을 종합 반영한 박물관이다. 1983년 “상하이역사문화진열관(上海歷史文物陳列館)”으로 문을 연 후, 1991년 7월 현 명칭으로 바꾸고 그 해 10월에 홍교로(虹橋路) 1286호에 재개관하였다. 당시 1,500여건의 문물을 “근대상하이성시발전역사진열(近代上海城市發展歷史陳列)”이라 이름하고 여섯 부분으로 나누어 1843년 개항부터 1949년 해방까지의 상하이 모습과 근대 상하이 조계의 개발과 소멸, 시정면모의 개선, 경제의 신속한 재기, 문화의 번영, 이민

사회 독특한 민속풍정 및 백년 내의 상하이 정치 형세를 포괄적으로 보여주었는데, 1999년 3월 폐관했다. 이후 상하이지역사박물관으로 재개장하면서 오늘날의 박물관이 되었다.

상하이지역사박물관은 2011년 상하이시 12차 5개년계획강령²⁵⁾을 통해 신관 건설이 예정되어 있으며 현재 박물관 사무소는 시정부에 위치하고 있다. 2001년 5월에 동방명주 방송 전과답 내부에 개방한 전시와 함께 “상하이원대수문유적지박물관(上海元代水閘遺址博物館)”, “상하이송택유적지박물관(上海崧澤遺址博物館)” 모두 세 곳의 전시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명대의 유물을 비롯해 개항이후 중국에 들어온 근대의 다양한 문물을 소장하고 있다. 그 수는 약 11만 건으로 종류 또한 서화, 금속, 도자, 공예, 회장, 문헌, 인쇄, 방직품, 석각, 화폐, 사진, 전지, 우표, 음반 등 다양하다.²⁶⁾ 또한 상하이 지방 문물 역사, 민정풍속, 인문환경, 도시 변천, 박물관학 등 여러 방면의 학술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서적도 출판해왔다.

앞으로 상하이지역사박물관은 ICOM 산하 국제위원회인 국제도시박물관위원회(CAMOC) 성원으로 세계적 기준에 맞추어 국내외성시박물관과의 합작과 발전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적으로 2003년 1월 상하이시인민정부에 의해 지정된 “상하이시애국주의교육기지”의 역할도 소홀히 하지 않는다.

25) 2011년 1월21일, 상하이시 제13계 인민대표대회 제4차회에서 비준한 《상하이시국민경제와 사회발전. 제12차 5개년 계획강령上海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의 제12장 “유행하는 매력의 국제문화대도시 조성塑造时尚魅力的国际文化大都市” 제3절 “공공문화 복무의 수평 제고提升公共文化服务水平”에서 세계 박람회장과 관의 결합을 통해 공공 문화서비스시설의 건설을 추진하는 것과 역사박물관과 기록보관소 등 공공 문화서비스시설 건설 항목을 제안했다. 동시에 상하이지역사박물관 신관 항목이 “十二五시기 부분에 중대한 문화항목”으로 여겨진다고 이는 박물관 스스로가 인식하고 있다. 上海市历史博物馆 网页. 关于历博. 上海市历史博物馆新馆建设项目被列入上海市“十二五”规划, <http://www.historymuseum.sh.cn/index.php/aboutlb/index?pa=7&resID=7>, 2015-11-11.

26) 명대 한희맹의 규슈(규슈지방의 자수) 화회중어책, 후동중의 행서축이나 명 서광계의 상에서부터 1893년 영국 보랍특 형제의 유한책임공사에서 제조한 로빙기(로빙실을 짜는 방직기), 1946년 미국제 볼드윈 기관차 앞부분, 민국시기 백자대례교, 청말 오우여의 밑그림, 민국시기 유아자가 주편한 《상하이통지고》 원본, 라오상하이의 《정신록》, 근대 진화성에서 영국에 대항했던 유물인 “진원장군”의 동대표, 태평천국의 대화진, HSBC은행 앞 문에 놓여있던 동사자, 1893년 영미 공공조계 및 법 조계비 등 근대의 주요 문물도 소장하고 있다. <http://www.historymuseum.sh.cn/index.php/aboutlb/index?pa=7&resID=7>, 2015-11-11.

2) 대만의 박물관 역사

대만지역의 박물관 설립은 대륙보다 그 시작이 빠르다.²⁷⁾ 1895년 청조에 대만을 할양받은 일본은 통치가 안정화 되자, 그들의 식민 통치를 대외적으로 보여줄 기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당시 일본 내에 다수의 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어 이미 근대 박물관에 익숙했던 대만총독부는, 박물관을 이에 적합한 기구로 인식하고 대만총독부민정부식산국 부속박물관(臺灣總督府民政部殖産局 附屬博物館. 이하 대만박물관)을 설립하였다.

설립 당시의 대만박물관은 대만의 예술, 학문, 산업을 아우르는 종합적 전시를 표방²⁸⁾하는 박람회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었다. 곧 박물관의 기능을 자연과학적으로 인식²⁹⁾하게 되면서 자연과학적 수집과 전시를 우선하고 부차적으로 역사전시를 하지만, 대만박물관은 여전히 박람회와 유사했다. 1915년 박물관이 신축되고 이년 뒤 상품진열관(商品陳列館)이 복관되며 식산류 표본이 옮겨지고 그 성격은 종합성박물관에서 자연사박물관으로 바뀌었다.

1945년 일본 패전 이후 대만이 중화민국의 성으로 편입되고, 49년 국공내전의 종결과 함께 대륙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선포되면서 대만으로 옮겨간 국민당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당시 대만에서 운영되던 유일한 박물관은 대만

27) 중국 대륙의 박물관을 이야기 할때는 외국인 설립은 배제한 채 중국인이 직접 설립한 박물관부터 이야기 하였다. 대만의 경우 식민지 산하의 박물관으로 시작하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서술에 포함한다.

28) 臺灣總督府民政部殖産局 附屬博物館을臺北廳 아래에 두고 本島에 관한 學術, 技藝 및 산업에 이바지 할 표본 및 참고품을 모집 진열하여 대중의 관람에 이바지하는 사무를 관장한다.” 훈령 제83호, 1908년 5월.

“全島의 산업적 표본이 舊彩票局 廳舍에 모아진 것을 기초로 점차 내용을 개선하고 충실히 하여 박물관의 시설로 한다.” 훈령 제96호. 1908년 8월.

臺灣總督府博物館, 臺灣總督府博物館, 『創立三十年記念論文集』, 臺灣博物館協會, 3쪽.

29) 식산국 국장 미야오 슌지(宮尾舜治)는 박물관 개설에 대해 “도대체 식산국 박물관이란 무엇인가”라고 자문한 후, “나는 박물관은 자연과학의 박물관이라고 여기고, 대만의 동식물, 광물을 전부 모으고 아울러 그것을 잘 이용하는 것이 박물관의 목적이다. 그 다음으로 이전에 소실된 역사를 진열하여 일목요연하게 알도록 한다”고 그의 생각을 피력했다. 그에 따르면 식산국 박물관은 제실박물관과 같이 ‘天産’의 수집과 전시가 일차적인 목표이고 다음으로 역사의 전시를 꾀할 수 있다(하세봉, 「20세기초 동아시아박물관과 역사적 知識의 造形」, 『동북아문화연구』28, 2011, 334쪽).

성박물관으로, 이는 식민지시기부터 이어지는 대만총독부민정부 식산국 부속기념박물관이었던 것을 표본 1만여점과 함께 이양받고 대만박물관으로 개칭한 것이었다.

1946년 2월 공포된 대만성박물관조직규정을 보면 “대만성 행정장관의 사무처가 인문과학, 자연과학의 각종 직접적 재료를 수집·연구·보존·진열하여 열람과 참고에 이바지하기 위해 특별히 대만성 박물관을 설치한다.”고 규정하며 이후 몇 차례 박물관조직규정을 수정했다. 그러나 1997년의 규정에서도 “대만성 정부는 자연사류와 각종 표본 및 자료를 수집·보존·연구·전시하고, 아울러 박물관 교육을 널리 펴기 위하여 특별히 대만성박물관을 설립하다.”라는 등 그 성격이 식민지 시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는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대만박물관이 대만 고유의 정체성을 갖기보다는 식민지시기부터 이어져오는 대만과 자연과학적으로 관련된 각종 자료의 수집과 보존, 연구의 기본적인 박물관의 기능에 머물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다. 당시의 국민당 또한 이러한 점에서 대표박물관이라 할 수 있는 대만박물관 대신에 고궁박물관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발전시켰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대만고궁박물관이 대표성을 갖도록 하는 주요 기제이다.

대만의 박물관들은 각 기관의 특성에 따른 문물 혹은 자연사자료의 수장과 전시라는 역할 분담을 하면서도, 1940-50년대에는 대륙에서 가져온 중화문물의 보존과 수집, 60년대-70년대는 중화문명의 선양과 보급, 80년대-90년대는 다양화의 추구, 90년대 후반에서 21세기는 대만분위의 전시로 그 변화를 정리할 수 있으며 이는 대만고궁박물관에서 대표적으로 읽을 수 있는 흐름이다.

청 이후 왕조의 소유물이 국민당 정부로 귀속되면서 이전까지 왕실 소유로 빛을 보지 못하던 중국의 각종 문화재는 1925년 10월 10일 베이징의 고궁에

서 민간에 첫 공개되었다. 전란기에도 지역을 옮겨며 수차례 이루어진 전시는 이후 국민당이 수세에 밀리게 되며 여러 차례에 걸쳐 총 24만 건의 중요 문화재를 1948년 12월 22일 이후부터 대만으로 옮겨졌다. 이를 수용한 대만 고궁박물관의 건물은 1965년 완성되어 손문의 탄생일을 기념해 개관하였다. 수집 기능도 중요하게 여기지만 유물의 보존과 전시에 더욱 중점을 두는 고궁박물관은 개관 이래로 조직개편과 함께 다섯 차례의 확장 공사를 거치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었다. 이 과정은 대만고궁박물관을 현대식 박물관으로 자리 잡고 본래의 기능에 충실하도록 하며 각종 정기간행물과 단행본, 도록 등의 출판과 국외활동이 가능하게 한 것이었다.

대만고궁박물관은 대만의 박물관 사업의 흐름과 발맞추어 1980년대부터 준비를 이루었다. 1985년에는 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의 동서문화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당시 새로운 기술의 미디어 상영실을 설치했다. 박물관의 사회교육적 사명에 맞추어 초중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학교 연계 전시 활동 등이 시작되었다. 1987년에는 “국립고궁박물관 조직조례” 실시는 물론 박물관의 행정적 정리가 이루어지고 유물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는 물론 도서관 건립이 이루어졌다. 또한 타 박물관과의 교류를 통한 대여 전시와 소장전 등도 90년대 후반까지 활발히 개최되었다.

고궁박물관은 2005년을 기점으로 대만 본토문화의 구현에 힘쓰는데 이는 이전의 재질에 따른 전시 분류를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재구성하는 것이었다. 2008년에는 박물관 본연의 기능인 소장과 연구, 전시, 교육, 보존과 전문성의 측면에서 수준을 제고시키고 조직구성과 인원의 조정을 비롯한 전문적인 경영을 도입하고 중국 및 해외와의 교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관광산업에 크게 이바지 하였다. 이는 대만과 중국이 관계 정상화에 주력하는 움직임에 고궁박물관도 힘을 신는 행보로 12월 행정원이 “양안고궁박물관”을 중점 진흥정책의 하나로 제정한 것과는 통하는 것이었다. 또한 문화콘텐츠 사업에

힘쓰며 교육기능의 측면에 있어서도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고 진행하여 대중과 가까워지려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Ⅲ. 중국과 대만의 박물관교육 흐름

1. 근대 중국의 박물관교육론

중국의 박물관에 대한 인식은 아편 전쟁 시기 사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서양에 실제로 왕래하게 된 사람들의 일기나 유랑기 같은 개인적인 기록에서 박물관과 관련된 글이 등장하는 것에서 출발하였다. 1890년대에 들어서며 중국의 지식층은 복잡하고 긴박해진 국내외적 정세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사상들이 일어나며 교육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기 시작하였다. Kang Youwei (康有爲)와 Li Duanbin (李端棻) 등은 무술변법시기 박물관 창설을 제창하며 박물관 교육기능을 통한 실학의 보조와 신식 교육의 발전을 주장하였다. 20세기에 들어서 장지엔(張謇)과 Luo Zhenyu (羅振玉)등이 이 인식을 계승해 박물관이 학교를 보조하도록 하고 사회교육기관으로의 인식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실제로 장지엔은 난통사범학교를 보조할 난통박물관을 설립했는데 이것은 박물관이 갖는 교육의 기능을 실제적으로 인식한 것이었다.

장지엔은 중국인으로는 최초로 박물관을 설립하여 중국 박물관 역사에 있어 개척자이자 근대 박물관학 이론의 단초를 세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늘날 중국의 박물관 사업이 국가 경제 건설의 발전과 함께 큰 발전을 이룬 것으로 자평함에 있어 장지엔의 사상을 보편적 전제로 여기고 있기도 하다.³⁰⁾ 그의 박물관 사상은 애국성, 교육성, 종합성, 장구성으로 설명될 수 있

으며 이러한 맥락은 중국의 박물관 교육에 있어서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었다.

장지엔은 박물관 구국교육으로 위태로운 국가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기대하였고 이는 애국심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일이었다. 그의 박물관 역시 애국심에서 발로한 학교 교육의 보조기관으로서 이를 이유로 종합성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의식은 건물 배치와 건축에도 반영되었고 박물관이라는 기관을 오래도록 보존하고 지켜나가려는 장구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³¹⁾

신해혁명 이후 중국의 박물관은 사회교육 기관으로 간주되고³²⁾ 국가 체제로 편입되어 초보적이거나 국가적 관리가 확립되었다. 국가가 설립한 박물관이 등장하고 황실의 수장품을 사회에 개방하였으며 관련 법령과 규정이 제정되어 수장과 전시 기능의 향상 및 학술 연구의 강화, 수량의 증가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관의 절대적 수는 부족했고 그 수준도 뛰어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회교육적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기에는 부족하였다.³³⁾

남경 임시정부가 수립되고 당시 교육부 총장이었던 차이유안페이(蔡元培)가 교육개혁을 단행하면서 사회교육사가 신설되고 비로소 각 지역의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동식물원 및 문물의 수집 등을 포함한 사회교육이 루선(魯迅)을 통해 집행되었다.

차이유안페이는 중국 근대 교육의 방향을 제시한 인물로 박물관 교육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의 사상 또한 박물관 교육의 중요성을 뒷받침하는데 자주 언급된다. 그는 칸트의 미학에서 영향을 받아 미감교육 즉 미육을 강조했는데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했다. 특히 학교에서의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기에 사회 미육이 요청되며 이것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공간으로

30) 凌振榮, 「张謇博物馆思想的特点」, 『博物馆研究』, 2010-3, 3-9쪽.

31) 凌振榮, 앞의 논문, 3-9쪽.

32) 李军, 앞의 논문, 107-109쪽.

33) 오일환, 앞의 논문, 253-273쪽.

박물관이나 미술관 등을 제시하였다.³⁴⁾ 차이유안페이는 지육·덕육·미육의 세 가지로 박물관 교육 기능을 해석했다. 특히 역사교육은 덕육의 중요한 내용으로 민중으로 하여금 자민족의 역사 발전을 알도록 하는데 그 목표가 있었다. 그의 이론은 현재 중국 박물관교육의 중요성을 강화시키는데 이용되고 있다.

2. 당대 중국과 대만의 박물관교육론

1) 중국의 박물관교육론

중국 성립 직후인 1949년부터 1952년까지 박물관은 애국주의 고취를 위한 기구로 개조되었다. 박물관에서의 도덕 교육 기능이 유일한 역할로 부각되고 그 임무는 ‘애국주의의 고취’였으며 그 주체는 혁명사였다. “박물관 사업의 임무는 혁명의 애국주의교육에 있으며, 인민대중으로 하여금 박물관을 통해 역사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자연을 인식하며, 조국을 사랑하고, 정치적인 각성과 생산에의 열정을 제고하는데 있다.” 고 명확히 규정하였다.³⁵⁾

이후 문화대혁명으로 소강상태였던 중국의 박물관은 개혁개방과 함께 활동을 재개하면서 본래의 구도를 유지하되 양적으로는 급속히 증가하게 되었다. 이 시기의 박물관교육의 방향은 1979년 반포된 『성·시·자치구 박물관사업 조례(成市自治區博物館工作條例)』를 통해 엿볼 수 있다. 이 조례는 박물관의 임무를 “수집을 통해 유물이나 표본을 수장하고 진열과 전시를 수행하며, 전통 역사와 과학문화지식으로 인민 대중에 대한 애국주의와 사회주의 교육을 실시하며, 전 민족의 과학문화 수준을 향상하고 중국의 사회주의 현

34) 이준수, 「蔡元培의 교육사상과 교육실천」, 『교육논총』13권 13호, 1997, 339쪽.

35) 김호걸, 「중국의 박물관과 역사교육」, 『역사와 역사교육』14, 2007, 31-45쪽.

대화 건설을 위해 공헌함”으로 규정하였다.³⁶⁾ 이전에 비해 역사와 과학에 더욱 초점을 맞추고 정치적 각성이나 불필요한 의식적 속박도 감소하였으나 중국의 역사교육은 여전히 주요 사회교육의 임무 중의 하나였다.

이러한 흐름은 1990년대에도 이어졌다. 중공중앙이 1994년 2월 발표한 『애국주의교육실시요강(愛國主義教育實施綱要)』에 따르면 중국에게는 애국이 역사이고 사회발전에서 불변하는 필수적 단계였다.³⁷⁾ 애국주의 교육의 내용도 이전처럼 ‘풍부한 역사 문화유산’, ‘중국을 위한 애국투쟁의 역사’, ‘전통 문화에 대한 교육’과 ‘사회주의의 현대화 교육’을 표방했다.³⁸⁾ 결국 이것은 역사교육의 중점적인 내용이며, 박물관 역사교육에도 여실히 드러났다.

90년대 이후 박물관교육에서의 역사교육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시는 실물 주입식 교육체계를 형성하고 더욱 풍부하게 하는 것이었다. 박물관교육의 주제는 역사유물을 통해 공산당의 기본 노선을 선양하고 애국주의와 집체주의 및 사회주의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었다. 국가급 종합박물관과 역사 박물관은 전시를 통해 민중의 인식 제고와 애국주의 함양에 있었다. 지방 종합박물관과 역사류 박물관의 역사교육의 목적은 전체사의 테두리 안에서 지역사를 전시해 그들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려는 것이었다. 박물관은 사회도덕교육에 유효한 수단으로 인식되어 애국주의 교육으로 통일되었다.³⁹⁾

결국, 중국 박물관은 전시의 대부분에 있어 투쟁사를 반영하고 정당의 입장을 뚜렷이 대변하며 성장했다. 중국공산당은 당사를 민중 애국주의교육의

36) 省、市、自治区博物馆工作条例, <http://www.chinalawedu.com/falvfagui/fg22598/23831.shtml>, 2015-11-11.

37) 中共中央关于印发『爱国主义教育实施纲要』的通知。一、爱国主义教育的基本原则。一九九四年八月二十二日, <http://politics.people.com.cn/GB/8198/65833/65839/66928/4514382.html>, 2015-11-11.

38) 위의 글, 二、爱国主义教育的主要内容, 一九九四年八月二十二日
<http://politics.people.com.cn/GB/8198/65833/65839/66928/4514382.html>, 2015-11-11.

39) 이러한 경향은 90년대 및 2000년대까지 지속되며 박물관은 기념관, 전람관, 의사공원 등과 함께 애국주의 교육기지로 선정되었다. 爱国主义教育实施纲要, <http://politics.people.com.cn/GB/8198/65833/65839/66928/4514382.html>, 2015-11-11.

필수적 요소로 중시하며 학교교육과 국민소양교육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유형의 박물관은 40년대부터 90년대를 거치며 수가 늘어났고,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최근의 중국의 박물관과 박물관 교육은 대국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며 변화를 꾀하고 있다. 사회주의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서 박물관이 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각적 학습이 가능한, 청소년을 위한 기구이자 평생 학습을 위한 기지로서의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⁴⁰⁾ 그렇지만 계통을 막론하고 박물관이 유물 중심의 전시를 통해서 관람객에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은 유물의 권위를 보여준다. 교육이념을 통해 결정된 전시 주제는 단지 시각적인 역사교과서이며 치밀한 지식을 논리로 나열한 것에 불과하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일부 전시는 주제에 맞춰지기도 하고, 교육의 의도가 직설적이다. 중국의 역사적 정보는 풍부하지만 교육의 주제와 목표는 단일하다는 단점을 드러내기도 한다.⁴¹⁾

곧 사회주의 이념을 기념하고 정체성화 하여 애국심을 고취하고 국가에 충성하게 하는 핵심적 자산이자 기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국민을 생산해 내기 위한 하나의 기관이던 박물관이 이제는 시민을 위한 소통의 장이자 평생 학습의 장으로, 사회 통합과 발전의 해결책으로 떠오르는 박물관의 시대적 의무와 역행한다고 할 수 있다.

2) 대만의 박물관교육론

오늘날 대만의 박물관교육 역시 세계적 흐름을 따른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대만의 박물관학에 관련된 저술 중 국립역사박물관에서 출판한 “박물관

40) 黃振春, 「중국 국가박물관의 도전과 미래」, 『21세기 박물관의 발전 전략과 미래-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포럼』, 2009, 107-118쪽.

41) 김호걸, 앞의 논문, 40쪽.

의 운영과 실무(博物館之運營與實務, 黃永川 주편, 2000.)”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만에서의 박물관교육은 지식의 전달과 사고능력의 훈련의 하나로 생각하고 이념과 자기 생각 표현의 근거가 된다. 오늘날 박물관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박물관이 사회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 또한 중요한 임무로 여겨진다. 기본적으로 대만의 박물관 교육은 사명을 가지고 박물관의 기본적인 목적을 근거로 박물관의 사회적 책무에 대한 맥락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오늘의 박물관교육의 추세를 따르고 있다. 이것은 박물관이라는 공간에 있어서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역사교육의 측면에서도 이야기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대만의 박물관은 근대 서양의 산물로 오늘날까지도 많은 부분이 서구의 영향을 받고 있다. 때문에 대만의 박물관 교육에 있어서 수장, 연구, 관람 등의 활동을 포함하는 물론 교육 활동이 확대되는 것은 이러한 영향 때문이다. 이러한 이견을 바탕으로 대만의 박물관교육은 끊임없이 대중과 소통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것을 바람직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박물관교육은 관람객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의 활동은 더 나아가 창조적 활동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⁴²⁾

IV. 당대 중국 박물관교육 현황 및 사례 분석

1. 중화인민공화국의 박물관교육 현황

1) 중국국가박물관-부흥지로

42) 徐天福, 「博物館推廣教育的理念與實務」, 『博物館-運營與實務』, 國立歷史博物館, 2000, 120-153쪽.

중국의 박물관 교육도 최근의 추세에 맞추어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활용 하고 있다. 문화박람(文化博覽-教育文化體驗活動)이라는 교육활동사이트에서는 주요 교육 정보를 집약하여 접속자가 열람하고 원하는 조건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국박물관협회에서도 교육활동 정보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고려한 소셜미디어로의 접속과 정보공유도 활발히 이루어진다.

중국국가박물관의 경우 웹사이트의 공공교육(公共教育) 공간⁴³⁾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 정보의 확인과 소셜미디어 연계가 가능하다. 2011년 9월부터 체험활동 교육을 시작한 중국국가박물관은 예술, 음악, 드라마, 과학의 4분야를 통해 오십여 가지의 경험을 제공하여 젊은 층에 좋은 반응을 얻음은 물론 전시와 관람객의 상호작용을 목표로 하여 실행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중국국가박물관의 상설전시⁴⁴⁾ 중 “부흥의 길”을 살펴보겠다.

2007년 중국공산당 제 17차 전국대표대회 개최에 맞춰 시작된 “부흥의 길”은 중공중앙 선전부에서 주도한 전시였다. 이것은 중국 근현대사를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의 역사’라는 주제로 개최되었으며 이는 중국공산당의 인식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정치적 선전과 애국교육의 의도가 짙다.

이후 2011년 재개관한 중국국가박물관⁴⁵⁾에는 “부흥의 길”이 상설전시로 정착했다. 이 전시는 중국공산당의 영도로 건립된 중화인민공화국을 통해 사회주의 기본제도의 확립과, 개혁개방을 통한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으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여준다.⁴⁶⁾

43) <http://www.chnmuseum.cn/tabid/836/Default.aspx>, 2015-11-12.

44) 중국국가박물관의 상설 전시는 “고대 중국(古代中国)”과 “부흥의 길(复兴之路)” 두 종류이다. “고대 중국”은 상고시대에서 청 말에 이르는 중국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기존의 “중국통사 전시”를 계승하였다. 이 전시는 중화문명의 지속적 발전해온 과정과 함께 소수민족과 함께 만들어 가는 다민족국가로서의 중국의 역사 발전 과정을 전반적으로 보여주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45) 부흥의길 전시가 상설전시가 되면서 이전 전시에서 부흥과 관련이 적다고 판단된 주제들은 축소되거나 삭제되었고 “부흥”이라는 관점으로 전시가 특징지어진다(马英民, 「再现中华民族复兴的壮阔画卷-大型主题展览“复兴之路”从中国人民革命军事博物馆到中国国家博物馆」, 『中国国家博物馆』, 2009, 51-66쪽).

46) 김지훈, 「현대 중국의 “부흥의 길” 탐색-중국국가박물관의 중국근대사(1840-1910)전시를 중심으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에 관한 전시는 1840년 아편전쟁부터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성립까지를 5부분으로 나누어 2300여건의 유물과 문헌, 사진, 도표, 모형, 그림, 조각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 목적은 간부와 대중, 청소년에게 애국주의교육, 민족정신과 시대정신을 교육함과 동시에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 공산당에 대한 의문을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때문에 부흥의 길은 중국이 왜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할 수밖에 없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전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⁴⁷⁾

부분(시기)	전시 내용
1부분 (1840-1911) 반식민지반봉건사회의 중국을 논하다.	-아편전쟁 전의 세계와 중국 -제국주의열강의 중국 침략 -중국인민의 항쟁과 각성
2부분 (1911-1921) 구망도존의 길 탐구	-국가 출로의 초기 탐색 -신해혁명으로 봉건황제 타도 -신해혁명 실패와 신문화 운동의 흥기
3부분 (1921-1949) 중국공산당이 민족의 독립과 인민해방의 역사적 중임을 담당하다.	-천지개벽의 대사변 -중국혁명의 신도로 탐색 -전 민족 항전의 굴하지 않는 튼튼한 기둥 -신중국을 위한 분투
4부분 (1949-1977) 사회주의 신중국의 건설	-중국 인민이 일어났다. -사회주의 기본제도의 확립 -사회주의 건설 탐색 중에 곡절있는 발전 -국제 지위의 제고와 국제환경 개선
5부분 (1978-2010)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로 나아가다.	-사회주의 사업 발전 개혁의 새로운 시기 -개혁개방 현대화 건설의 신국면 개창 -소강사회 건설의 신국면 전면개창

1부분은 서구 자본주의의 발전과 봉건 중국의 상황을 대비하며 열강의 중국침략으로 인한 고통과 그에 대한 항쟁을 강조하고 있다. 2부분은 열강에

」, 『사람』48, 2014, 249-286쪽.

47) <http://fuxing.chnmuseum.cn/intro.php>, 2015-11-12.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 신해혁명의 성과와 한계를 보여준다. 3부분은 중국공산당의 역할을 민족독립과 해방으로 규정지으며 국공내전까지의 역사를 보여준다. 4부분은 중화인민공화국 수립부터 문혁까지를 전시한다. 5부분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보여주며 중국의 발전상을 보여준다.⁴⁸⁾

이 전시는 중국근대사를 열강의 침략에 대한 중국의 저항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는 중국 중학교 역사교과서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는 시각으로 공공교육의 특성을 명확히 드러냄과 동시에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종래의 혁명사와 함께 근현대 중국의 부흥을 위한 지식인의 모색 등과 같은 노력의 역사도 매우 강조하고 있는 전시이다.

2) 상하이지역사박물관

상하이지역사박물관이 동방명주에서 제시하는 상설 전시는 상하이의 관광 명소로 자리를 잡았다. 그 내용은 “화팅현의 근원(華亭溯源)”, “성 안팎의 풍경(城廂風貌)”, “무역항 개항의 조감(開埠掠影)”, “상하이의 근대식 거리(十里洋場)”, “해상의 오랜 발자취(海上旧踪)”의 5개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모형과 음향, 멀티미디어 자료 조회 장치 및 영화와 TV 모형 합성 장치 등 다양한 전시 시설을 통해 일개 해변지역 어촌이었던 상하이가 중국 최대의 공·상업도시로 발전한 과정을 보여주는데, 근대 상하이의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생활 등 각 방면의 역사 변화와 발전을 보여주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근대 도시 상하이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재현한 박물관의 전시시설은 관광객들의 흥미를 끌어 모으는데 효과적이었다.⁴⁹⁾

상하이지역사박물관의 애국주의교육기지로서 행보는 근래에 개최된 특별전

48) <http://fuxing.chnmuseum.cn/intro.php>, 2015-11-12.

49) 근대 상하이에 대해 사람들이 강한 흥미를 보이는 현상은 ‘올드 상하이 노스텔지어’로 1920, 30년대 상하이 조계라는 특정 공간과 시간을 향수한다. 다양한 분야에서 갑자기 나타났으며 이에 대한 입장도 다양하다(김승욱, 「근대 상하이 도시공간과 기억의 굴절」, 『중국근현대사연구』41, 2009, 115-116쪽).

과 순회전을 통해 알 수 있다. 그 내용은 “손중산과 상하이-문물문헌문서전(孫中山與上海——文物文獻檔案展)”, “모던도시-상하이사회의 풍경(摩登都會——滬港社會風貌)”전, “동풍서점-유럽자기전(東風西漸——歐洲瓷器展)”등과 같은 근대 상하이의 모습을 알리는데 주력하는 것이었다.

올드 상하이라 불리는 근대 상하이에 대한 관심은 과거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일종의 현상이다. 중국은 이 현상을 통해 사회주의 역사가 단절되고 지구화와 만나는 시대 전환이 근대 상하이에서 발생했음을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맥락은 지구화 환경에 주도적으로 개입하고 싶어 하는 중국 당국의 입장을 드러내는 설명이 된다.⁵⁰⁾

또한 “상하이의 명인을 말하다(名家談上海)” 같은 공익성 강좌도 수차례 열며 상하이 지역 역사와 박물관 관련 지식을 알리는 역사박물관으로서의 역할에도 힘을 쏟음을 보여주며 비교적 좋은 사회적 평가를 얻었다 자평한다. 이처럼 상하이지역사박물관은 도시 발전을 대중에게 충분히 보여줌과 동시에 상하이의 고대사부터 근대를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시설로, 공공 개방 시설의 역할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상하이의 근대 전시장인 동방명주와는 달리, 상하이지역사박물관의 특별전시는 ‘애국기지’로서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14년의 “동방홍·중국몽(東方紅·中國夢)”⁵¹⁾ 전시가 있다. 1964년에 베이징에서 상연된 “동방홍(東方紅)” 공연의 기록물을 전시한 것이다. 이 공연의 제작과정이 약 200개의 문서 원본과 400개 이상의 희귀한 사진 및 백여 개의 사본으로 전시되었으며, 중국의 문화적, 민족적 자신감을 적극적으로 드러냈다.⁵²⁾

50) 올드상하이에 대한 의견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존재하나 이에 대한 전반적인 입장은 이와 같이 귀결된다(김승욱, 앞의 논문, 117-118쪽).

51) 2014년 9월 2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약 한달 간 상하이시예술기록물관과 상하이도시계획관 2층에서 공동개최하였다, 『新民晚报』, 2014-09-26,

http://xmwb.news365.com.cn/wy/201409/t20140926_1322571.html, 2015-11-12.

52) <http://www.historymuseum.sh.cn/index.php/show/index?pa=7&resID=41>, 2015-11-12.



‘동방홍(東方紅)’은 중화인민공화국 성립 15주년인 1964년 10월 3일, 제 5회 “상하이의 봄” 음악회⁵³⁾ 개막식에서 『마오쩌둥의 기치아래 전진하는(在毛澤東的旗幟下高歌猛進)』를 바탕으로 하는 대형음악무도서사시로 저우언라이(周恩來)가 총감독을 맡아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개최되었던 공연이다.⁵⁴⁾ 당시 이 공연에는 문화 예술 관련 인사가 200명 이상이 참여했고, 80일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다.⁵⁵⁾

“동방홍·중국몽(東方紅·中國夢)”을 통해 상하이지역사박물관이 보여주고 싶은 것은 명확하다. 이는 전시를 통해 세계 지구화를 이끌어 갈 중국을 표상하는 상하이 역시 동방홍의 기치를 높이 올리고 중국몽을 실현하는 도시임을 보여주며 또 중국인의 오늘과 미래가 될 것이라 드러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하이지역사박물관이 애국주의교육 기지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음의 증거이기도 하다.

상하이지역사박물관 역시, 앞서 박물관교육론의 하나로 언급한 디지털 테

53) 현재 “상하이의 봄 국제 음악제(上海之春国际音乐节)”라는 공식 명칭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음악제이다. 1959년에 “상하이시 음악무도선전의 달(上海市音乐舞蹈展演月)”로 시작되어 이듬해 5월 “상하이의 봄上海之春”이라는 정식 명칭을 갖게 되었다, www.ssimf.org, 2015-11-12.

54) 동방홍은 1966년부터 1978년까지 사용된 중화인민공화국의 비공식적인 국가이다. 본디 국가(國歌)였던 의용군행진곡은 작곡가인 텐한이 문혁시기 숙청을 당하고 사용이 금지되었다가 후일 여러 단계를 거쳐 중국의 국가가 된다.

55) 각주 51 참조.

크놀로지를 통해 관람객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상하이시 역사박물관은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 공간을 마련해 놓았다.⁵⁶⁾ 캐릭터와 커다랗고 둥근 글씨체를 이용해 간단한 컴퓨터 게임으로 유물에 친근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교육의 효과보다 놀이를 통한 흥미유발로 관람객의 접근을 돕는 것에 방점을 두는 것으로 보인다.

2. 대만 고궁박물관의 교육 사례

고궁박물관은 다양한 연령과 계층에 맞춘 교육활동을 기획한다. 우선적으로 정기적인 전시설명 및 유물 세미나를 실시하며 어린이 학습센터, 교사 대상 워크숍, 학교와 박물관 간의 협력, 자원봉사자 육성, 지방과 도서지역을 위한 복제품 순회전, 원내 시설을 활용 전시 및 이와 결합한 교육활동 진행한다. 또한 “고궁의 새바람”처럼 유물의 감상과 공연예술을 결합한 전통 희곡 공연도 있다. 이밖에도 컴퓨터 기술을 이용한 고궁박물관 U화 계획으로 건물을 벗어나 대중이 접하기 쉬운 전시와 교육을 위해 노력한다.

고궁박물관은 홈페이지를 통한 교육의 접근이 매우 수월하다. 시행되는 교육은 온라인신청시스템(線上報名系統)으로 접수가 가능하며 이밖에도 방대한 교육 자료故宮教學百寶箱제공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에는 오픈된 자료가 다양하며 학령기, 특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자료가 주를 이룬다. 교육 자료의 형식은 출력이 가능한 학습지 형식의 파일과 youtube 채널을 통한 영상, 게임 등 다양하다. 또한 open data를 통해서도 교육 정보와 자료의 공개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다. 학습 자료(教學資源-教學百寶箱, 古宮E學園, 兒童樂園) 페이지에서는⁵⁷⁾ 유물의 검색, 어플리케이

56) <http://www.historymuseum.sh.cn/Public/game/index.htm>, 2015-11-12.

선APP의 실행, pdf 등의 파일 자료, 지난 교육프로그램의 개요 열람 등이 가능하다. 교육의 세밀하고 다양한 분류와 자료 제공을 통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계가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박물관교육이 직간접적으로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고궁박물관의 기술 활용은 전시물과의 상호작용성을 기반으로 하여 관람객의 전시에 대한 개별화된 이해와 경험을 지원하고, 많은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인지적, 물리적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이다. 더 나아가 박물관 경험을 중심으로 사람들 간의 사회적 관계성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도 그 목적의 하나로 강조되어 왔다. 무선 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모바일 테크놀로지의 발달 등으로 인해 웹상에서의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 방식은 각각이나 활용 목적은 일관되게 상호작용과 몰입, 참여, 소통을 강조하고 있다.⁵⁸⁾

박물관에서의 테크놀로지 활용은 전시물과의 상호작용(Interactivity)을 기반으로 전시에 대한 관람객의 개별화된 이해와 경험을 지원한다. 또한 많은 관심과 흥미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인지적·물리적 참여를 촉진시키고 더 나아가 박물관경험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적 관계성의 경험을 목적으로 한다.

전시물 설명 라벨과 안내 유인물, 설명에 사용된 오디오 등이 박물관의 전통적인 테크놀로지라면, 1990년대 중반이후에는 인터넷을 기반으로 새로운 형식의 테크놀로지가 논의되기 시작해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다. 웹상의 가상 박물관을 거쳐 무선인터넷이 활성화된 오늘날은 모바일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스마트박물관 시대를 맞이하였다.

최첨단 테크놀로지의 등장으로 박물관은 사용자에게 더욱 유용하고 친근한 접근 방식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 물론 테크놀로지 자체에 대한 오늘날의 고민처럼 박물관 교육 역시 절대적 해답으로 기술 이용을 선택할

57) <http://theme.npm.edu.tw/opendata/Article.aspx?sNo=02009128>, 2015-11-12.

58) 강인애, 「박물관(미술관)교육과 디지털 테크놀로지」, 『한국박물관교육학』, 문음사, 2010, 158-206쪽.

수는 없다. 요컨대 박물관은 관람객과 사용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전시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개별적 선택과 활용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관람객이 전시물을 참여하는데 있어 더욱 적극적으로 선택하도록 지원한다.

고궁박물관 역시 이러한 움직임과 관련하여 웹사이트에 아동원지(兒童園地) 코너를 마련하고 유아부터 학령기의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습 자료 다운로드(學習資源下載)가 가능하도록 한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박물관 교육은 경험을 통한 학습과 아동 주도 학습에 있어 놀이와 체험을 중요하게 여기며 교육에 내재된 가치를 촉진시켜주는 장이 되어야 한다.

박물관을 많이 찾는 연령대는 초등학생 단체 관람객과 초등학생을 둔 가족 관람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박물관에서는 주 관람객을 타겟으로 교육 자료를 구성할 수 있다. 고궁박물관에서는 이에 맞춰 다양한 교육자료와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고 전시를 통해 교육과 같은 인지적 측면과 즐거움과 놀이 같은 감성적 측면의 경험을 동시에 할 수 있다.

(1) 고궁박물관 어린이교육

박물관교육을 설계함에 있어 그 주 연령대를 초등학생 단체 관람객과 초등학생을 둔 가족 관람객으로 하는데 이는 실제 방문률이 높기 때문이다. 웹을 통해 활발히 이루어지는 박물관의 교육은 이러한 대상에 맞추어 자료의 제공 또한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실제로 아동아트센터(兒童學藝中心)를 설립하고 유아부터 학령기 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아동학습센터의 웹페이지를 살펴보면 14개의 설명서와 24개의 워크시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다.

명칭 및 교육 가이드북	워크시트(중수, 대상 및 장소)
童玩大集合 아동 놀이 모음	1종.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아동학습중심센터 실시
陶瓷巧工場 도자기 워크샵	조형편, 장식편 2종.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205호/ 205, 207 진열실
走進清明上河圖 청명상하도	활동편, 교통수단편 2종. 초중고 대상 102호/아동학습중심센터
茶的饗宴 차의 향연	다구편, 배자편2종. 초등학교 저학년 대상. 아동학습중심센터
小故宮幻想曲 작은 고궁 환상곡	별도의 워크시트 없음. 사이즈 2종.
百年傳承走出活路－中華民國外交史料特展 백년 전승 활로로 나아가다-중화민국외교 사료특별전	별도의 워크시트 없음.
文藝紹興－南宋藝術與文化 문예부흥-남송의 예술과 문화	별도의 워크시트 없음.
皇帝的玩具箱 황제의 장난감 상자	1종. 초등 저학년. 106진열실.
美麗的花紋 아름다운 문양	2종. 초등저학년. 205진열실.
故宮尋寶 고궁 보물 찾기	1종. 초중고. 302, 305, 306 진열실
古今生活 과거와 현재의 생활	古場所篇, 橋樑篇 2종. 초중고. 102도 람대칭, 아동학습중심센터
童話故事 전래 동화	犧尊篇, 獸面紋篇 2종. 초중고등학교. 305 진열실
動動手·玩扮裝 의상 체험 놀이 별도 가이드북 없음.	교안과 사진 구성. 6개월-12세 어린이-부모동반 교육.
翻開手卷說故事 두루마리 고사 읽기 별도 가이드북 없음.	적벽 관련 서화의 감상과 문예 창작 초중생 대상.
竹鳩找朋友 새(죽구)의 친구 찾기 별도 가이드북 없음.	교안 및 워크시트. 초등학교 대상 남송 서화의 감상과 작품 만들기
日暖花香山鳥啼 따뜻한 봄날에 새가 우네 별도 가이드북 없음.	교안 및 워크시트. 초등학교 대상.
輕鬆學國寶－瓷吒風雲 남송문물을 통한 시대 학습 별도 가이드북 없음.	교안 및 워크시트. 초등저학년 이상.
國寶總動員 국보총동원 별도 가이드북 없음.	神器活現篇 1종 A4판·A3판 초등저학년 이상.
國寶總動員 국보총동원 별도 가이드북 없음.	本尊現形篇·尋人啓事篇 2종. 초등저학년 이상.

소장품의 가치가 높고 그 양 또한 방대하기에 고궁박물관의 자료 제공과 교육은 대표 소장품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그 구성도 유물과 전시에 충실한 내용 작성, 유물의 위치 찾기 등 학습 내용의 확인이나 유물 만들기 활동을 통한 흥미 유발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와 같은 교육은 고궁박물관을 이해하는데 있어 유물의 가치에 대한 이해도 높이기와 직결된다. 이와 함께 박물관이 박물관 교육을 통해 설명하는 정체성도 이어지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상설전 관련 교육-청명상하도

고궁의 대표적 유물 중의 하나인 청명상하도를 통해 생활의 옛 풍경을 살펴본다. 이렇게 전시와 연계된 교육프로그램은 대상자인 아동이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의 인지활동을 통해 작품의 이미지와 의미를 보다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도록 한다.

워크시트는 활동편과 교통수단편의 두 가지 종류<그림 1, 2>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명상하도 내의 모습을 보여주고 그 명칭을 넣는 괄호 넣기 형식과 설명하기, 찾아보기로 구성되어 있다.

(3) 특별전 연계 교육 랑스닝

특별전에서 주목할 만한 전시는 『신필단청-랑스닝 중국 정착 300년(神筆丹青—郎世寧來華三百年)』⁵⁹⁾ 전시다. 이 전시에 대해 고궁박물관장은 고궁박물관 개원 90주년 기념 전시 18개 중 중심이라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탈리아 예수회선교사로 파견되어 청 황실에서 활동한 화가 랑스닝(郎世寧), 주세페 카스틸리오네는 원명원의 서양식 건물 설계로 유명하기도 하다. 그는 중국과 서양 회화 교류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로 청 회화에 서양화법을

59) <http://www.npm.gov.tw/zh-tw/Article.aspx?sNo=04006547>, 2015-11-12.

도입해 족적을 남겼다. 랑스닝은 다량의 유화작품과 서양식 투시법을 중국 전통안료와 융합한 ‘선법화(線法畫)’ 등을 남겼으며 랑스닝의 화풍 형성에는 건륭제의 서양에 대한 관심이 큰 역할을 했다.⁶⁰⁾

그가 활동했던 옹정-건륭 연간은 청대 궁정회화의 번영기로 화가 관련 기구와 제도가 갖춰짐은 물론 회화 제재의 내용과 풍격 양식이 풍부하고 다채로워졌다. 특히 외국인 선교사들이 궁정에 봉직하며 서양화법을 전파해 중국화법과 서양화법이 결합된 새로운 화법이 성행한 시기이기도 하다.⁶¹⁾

랑스닝의 전통화풍과 혼합된 서양화법은 궁정화단을 중심으로 계승되었고 그의 작품 중에 유명한 것으로 말이 등장하는 공마도(貢馬圖)가 있다. 말이란 만주족에게는 사냥의 주요 수단이자 민족적 동질성을 상징하는 동물이었다. 특히 공마(貢馬)란 건륭제의 制夷政策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중국전통화의 화면구성과 어우러지는 그의 화법은 마진(馬晉, 1900~1970)과 황족 출신 화가 부설재(傅雪齋) 등에게로 이어져 베이징을 중심으로 근대 화단에까지 영향을 주었다.⁶²⁾

이 전시는 중국고궁박물관과의 교류전으로 중국의 랑스닝 소장품 8점이 출품되어 양안-중국과 대만-이 문화교류를 통해 우호적인 분위기를 갖고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가 있기도 하다. 현재 고궁박물관의 특별전 신필단청과 관련된 활동으로는 아동극 관람과, 부모-자녀가 함께 참여 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있다.

『신필단청 부모-자녀활동(那些年, 我在皇帝身邊畫畫的日子—「神筆丹青—

60) 건륭제는 서양화 자체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그 기능적 측면에 주목하였다. 서양화법의 기록적이고 장식적 기능을 활용하여 전통수묵화를 풍부히 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였다. 랑스닝 화법이 지닌 사실성을 ‘형사(形似)’와 동일시하여 ‘사의(寫意)’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단계로 보았다. 건륭제가 낭세녕에게 전통화의 임모와 倣作을 명하고 중국화가와의 合作을 요구한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낭세녕의 서양화법에 대한 유사한 인식은 胡敬의 『國朝院畫錄』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이주현, 정석범, 「乾隆帝의 西畫인식과 郎世寧화풍의 형성: 貢馬圖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23, 2009, 91쪽).

61) 단구오지양(單國強)편저, 유미경·조현주·김희정·홍기용 옮김, 『중국미술사4: 명·청부터 근대까지』, 다룬생각, 2011, 148쪽.

62) 이주현, 정석범, 앞의 논문, 108쪽.

『郎世寧來華三百年特展』兒童劇團演出活動』은 2015년 11월 8일과 22일, 12월 6일 총 3차례로 구성되어 박물관 대강당에서 진행되는 아동대상의 공연이며 어린이의 흥미에 맞추어 노래와 함께 45분간 구성된 극이다. 강희제, 옹정제, 건륭제가 존경한 뛰어난 서양화가 랑스닝과의 거리를 좁히고 학습동기 부여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직접 강의나 워크시트를 가지고 하는 교육이 아닌 아동극 관람⁶³⁾이라는 3차의 교육은 흥미를 고취시킬 것이다.



박물관에서의 경험이 극으로 제시되는 경우에 참여자는 역사적 사실에 수동적 반응을 보이다가도 당시의 상황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다. 박물관 연극이 자연스러운 생각표출의 환경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관람을 하는 사람은 능동적으로 역사 속에서 사건을 창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연극은 ‘내가 무엇이 되어보는 경험’이기 때문에 등장인물이 되어 생각하고 행동하여 얻는 소통과 공감은 연극을 통한 매력이다. 전시물에 담긴 의미가 워크시트의 활자나 교수자의 말을 통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주체적으로 그 속의 이야기와 감정을 통해 맥락적 이해를 할 수 있는 경험이 되는 것이다.⁶⁴⁾

63) <http://www.npm.gov.tw/zh-TW/Article.aspx?sNo=03006755>, 2015-11-12.

64) 황가원, 『박물관 연극을 활용한 전시 이해 지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26-28쪽.

V. 정리 및 제언

오늘날 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며 박물관의 기본 기능인 수집과 전시, 연구의 발전은 물론 학예사와 관람객, 전시물 등과 같은 구성 요소 간의 상호관계에 대한 관심과 연구도 심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물관은 근대 국가의 설명과 정체성 확립을 위한 기관에서 탈피하여 사회적 존재로 거듭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박물관에 기본기능인 수집과 전시, 연구는 다분히 선택적이고 의도를 포함할 수밖에 없기에 이 기능이 존재하는 한 박물관은 정치성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이러한 지점에서 본고는 박물관과 박물관교육을 통해 국가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이 연구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그 대상은 중국의 중국국가박물관과 상하이시역사박물관, 대만의 고궁박물관이다.

중국은 1949년 이후로 대륙의 중화인민공화국과 식민지였던 대만 섬의 중화민국이라는 각기 다른 체제를 가진 국가로 존재해 왔다. 오늘날 대륙 중국은 급속적인 성장으로 제국의 위치를 재탈환하는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다. 설령 중국이 그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더라도 지리적으로 매우 근접한 우리나라에는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중국에 대한 담론장에 비판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으며 그 사고의 틀과 성찰의 계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중국의 박물관과 박물관교육을 살펴보는 것은 또 다른 관점이 되리라는 기대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연구 대상은 중국당국의 의도가 대표적으로 드러나는 정치의 중심지인 수도 베이징에 위치한 중국국가박물관과 사회경제의 중심지인 상하이시역사박물관을 선정하였다. 이에 반하여 중국에 비해 일찍 자본주의를 이룩하여 다른 체제를 갖고 있는 대만의 고궁박물관을 비교 연구하고자 하였다. 같은

역사를 지녔으나 대립적이라 할 수 있는 체제를 가진 두 국가의 비교로 명확한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중국국가박물관은 중국을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고대중국’과 ‘부흥지로’ 두 개의 상설전시가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는 ‘부흥지로’라는 근대중국의 역사 전시를 살펴보았다. 이 전시는 중국 근현대사를 중국공산당의 영도 하에 이어온 부흥의 역사로 설정하고, 오늘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국가의 현대화라는 정체성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있으며 테크놀로지와 매체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관람객에 접근했다. 이는 중국 당국이 국민과 외부 관람객에게 직접 전달하고 싶은 바이기도 하다.

상하이시역사박물관은 근대 상하이를 동방명주의 상설전시와 함께 여타의 전시로 제시하는데 동방명주의 전시는 세련되고 흥미를 이끄는 모형전시는 상하이의 대표관광지로 자리 잡을 만큼 성공적이다. 중국당국은 상하이를 통해 중국에도 사회주의 역사와 단절된 세계와 만나는 지점이 발생했음을 설명한다. 또한 이러한 맥락은 앞으로 지구화환경에서 중국당국이 주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으로도 대치될 수 있다. 한편 이와 함께 동방홍 기록물전시와 같은 애국주의교육 전시도 개최하여 중공중앙과도 일치하는 행보도 보이고 있다.

반면 대만의 박물관은 중국과 다른 측면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다. 대륙에서 밀려나 중국 남부의 섬이라는 지리적으로 소외된 공간에 위치한 대만은 고궁박물관에 수장된 가치 높은 중화문화로 그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려 하고 있다. 때문에 박물관과 박물관교육은 도자기, 서화 등으로 이루어진 청조를 비롯한 전통왕조의 보물을 강조하면서 끊임없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고궁박물관의 전시와 프로그램은 테크놀로지 이용과 자료공유, 교육활동에 있어 그 짜임과 내용이 흥미롭고 풍부하여 관람객의 접근과 이용을 용이하게 하며 최근 박물관교육의 추세도 따라잡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보아, 중국 대륙이나 대만 모두 같은 방식으로 서로 대비되는 정체성을 관람객에게 이해시키는데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오늘날 박물관과 박물관교육의 세계적인 흐름은 기본 기능의 심화와 확대에서 나아가 박물관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의문들, 국가 통치와 사회의 접점에 대한 문제까지 고민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중국 대륙의 정체성 굳히기가 정부의 의도처럼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의 성공이나 지구화주도자로 귀결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지리적 소외감을 바탕으로 하는 대만의 정체성 확인 작업 역시 미래의 역사 주도권을 선점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에 대한 개선책은 지금 박물관에서 보여주는 전시기법에 테크놀로지를 접목한 것과 같은 기술의 진보나 선진화로 해결될 것이 아니며 다른 각도에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심층적 연구는 추후로 미루겠다.

참 고 문 헌

<자료>

『ICOM NEWS』

『박물관학보』

『上海市国民经济和社会发展第十二个五年规划纲要』

『省、市、自治区博物馆工作条例』

『爱国主义教育实施纲要』

<저서>

도미니크 폴로, 『박물관의 탄생』, 돌베개, 2014.

최종호 외, 『인류에게 왜 박물관이 필요했을까?』, 민속원, 2013.

최석영, 『하인 G. E. Hein의 구성주의 박물관교육론』, 민속원, 2012.

캐롤라인 랭, 『뮤지엄 매니지먼트, 관람객에게 응답하는 박물관 경영 전략』, 커뮤니케이션 북스, 2011.

최종호 외, 『한국박물관교육학』, 문음사, 2010.

김종대, 『박물관 교육의 이론과 실제』, 문음사, 2009.

존 포크·린 디어킹, 노용 외 옮김, 『박물관교육의 기본』, 미진사, 2007.

백령, 『멀티미디어 시대의 박물관 교육』, 예경, 2005.

전진성, 『박물관의 탄생』, 살림, 2004.

徐天福, 『博物館-運營與實務』, 國立歷史博物館, 2000.

<국문 논문>

- 조혜진, 「박물관 ‘전시’의 역사교육적 함의와 활용 방안」, 『역사교육』134, 2015.
- 김지훈, 「현대 중국의 “부흥의 길” 탐색-중국국가박물관의 중국근대사(1840-1910)전시를 중심으로-」, 『사림』48, 2014.
- 황가원, 『박물관 연극을 활용한 전시 이해 지도』, 서울교육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 강선주, 「역사교육과 박물관 역사 전시의 만남」, 『역사교육연구』16, 2012.
- 박연희, 「박물관 교육의 국제적 동향-관람객의 학습을 위한 ‘맥락적 접근’과 ‘참여적 접근’ 탐구」, 『東垣學術論文集』13, 2012.
- 박소현, 「신박물관학 이후, 박물관과 사회의 관계론」, 『현대미술사연구』29, 2011.
- 하세봉, 「20세기초 동아시아박물관과 역사적 知識의 造形」, 『동북아문화연구』28, 2011.
- 하세봉, 「臺灣 박물관과 전시의 정치학-3대 박물관을 중심으로-」, 『中國近現代史研究』45, 2010.
- 김승욱, 「근대 상하이 도시공간과 기억의 굴절」, 『중국근현대사연구』41, 2009.
- 이주현, 정석범, 「乾隆帝의 西畵인식과 郎世寧화풍의 형성: 貢馬圖를 중심으로」, 『미술사연구』23, 2009.
- 조용환, 「고등학생의 학업생활과 문화 연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본연구보고서』, 2009.
- 黃振春, 「중국 국가박물관의 도전과 미래」, 『21세기 박물관의 발전 전략과 미래-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 포럼』, 2009.
- 김호걸, 「중국의 박물관과 역사교육」, 『역사와 역사교육』14, 2007.

- 서원주, 「동서양 ‘박물관’ 명칭의 어원과 그 교육적 함의」, 『박물관교육연구』창간호, 2007.
- 이정효, 「중국박물관의 기원과 그 근대화 과정에 대하여」, 『박물관학보』7, 2004.
- 가네코 아쓰시, 「박물관의 정치성에 대해-박물관사 연구방법론에 대한 생각」, 『미술사논단』14, 2002.
- 김호숙, 「박물관과 역사교육」, 『역사와실학』13, 1999.
- 呂濟民, 「중국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박물관학보』2, 1999.
- 오일환, 「中國의 博物館-形成과 發展을 中心으로」, 『고문화』52, 1998.
- 이준수, 「蔡元培의 교육사상과 교육실천」, 『교육논총』13권 13호, 1997.

<중문 논문>

- 李军, 「晚清民国时期对博物馆教育功能的认识」, 『博物馆新论』, 2014.
- 何琦, 王军, 尹雁, 「博物馆教育功能的社会心理学探析——基于蔡元培的博物馆教育思想」, 『科普研究』, 2010-4.
- 凌振荣, 「张謇博物馆思想的特点」, 『博物馆研究』, 2010.
- 马英民, 「再现中华民族复兴的壮伟画卷-大型主题展览“复兴之路”从中国人民革命军事博物馆到中国国家博物馆」, 『中国国家博物馆』, 2009.
- 吴橄珍, 「拓展博物馆教育功能之我见」, 『博物馆研究』, 2006-4.
- 王仁波, 周丽中, 「上海市博物馆事业的历史、现状和发展趋势」, 『中国博物馆』, 1997.

ABSTRACT

The Case Analysis of Chinese Museum Educational Programs

Wang JinKyung

Dept. of the History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Sungshin University

In the contemporary various and enlarged society, museum's openness to the public and its educational functions are widely used and its usefulness is still expected in the future. From collection, preservation and exhibition of relics to the educational effect, positive functions of museums and the attention to them have laid foundations for the active studies on museums and museum education.

Chinese museums started with introduction of modern culture have gone through changes over time. Unlike the previous exhibitions, which put drumming the contents through the display of relics, basic function of them, before everything, Chinese museums also want to communicate with viewers in accordance with today's flow. The communication aims at the understood China, and the exhibitions digest some of the aims. At this point, this study tried to compare exhibitions at the National Museum of China and Shanghai History Museum with those of the National Palace Museum,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resent of China and Taiwan.

The reason this study compares cases of China and Taiwan is that as two countries in the cross-straits relations have walked a totally different path after modern times, very different and sensitive, it is expected such aspect will be shown in the museum education as well.

The exhibition "The Way of Revival" held by the National Museum of China shows China as the revival history, and positively explains the aspect of the socialist state, the feature of Chinese government, from their own viewpoints. Shanghai, the symbol of modernization, clearly reveals the context of the city and the posi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 through the Oriental Pearl TV Tower Exhibition Hall.

National Palace Museum of Taiwan also has its own context. The Taiwanese government, which has the local characteristic that it is not the Chinese continent but island, recalls and emphasizes valuable relics of the traditional dynasties through the advanced display technology. However, this is an identity identification of Taiwan based on the sense of geographical alienation, which is very similar to China.

At this point that today's worldwide stream of museums and the museum education even leads to the questions of political and social natures of museums, strengthening their own identities of China and Taiwan will not be realized as they intend. Therefore, this problem will not be resolved by the advance in the visual technology as now — grafting technology on the exhibition technique, but they have to agonize it from different angles.